

Open *Doors*

02

2022

VOL.238



카톡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World Watch List 2022월드와치리스트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그리스도 몸의 지체와 유기체적 공동체 의식

김성태 교수
(한국오픈도어 대표이사)

이슬람은 오마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지만, 이슬람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모하메드 이후 후계자 문제와 율법으로서 샤리아 적용문제와 정통성과 이질성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분열하고 있고, 서로 간에 다툼과 이합집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슬람의 특정 국가들이 오일달러로 인한 부와 재물을 종파의 다양성과 상관없이 이슬람 포교를 위해 공동전선을 펴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전 세계에 호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관한 결과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이다.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복음주의적 개신교회의 연합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고, 절실하다. 고난받는 교회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연약한 지체이기에 신학의 다양성과 교회조직의 혼란스러움이 있다.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모인 국제선교 회의는 복음주의 교회의 선교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중화권을 대표하는 대륙의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해외 화교교회의 선교지도자들과 국내외의 한인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동아시아의 고난받는 교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것인가를 한 주 동안 논의하였다.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돕기 위한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의 은사와 소명 가운데 그리스도 몸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선교현장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서로 간의 선교협력을 논의하였다. 성경대로 한 가닥의 줄이 아니라 세 겹줄의 모임이었다. 감사한 것은 유럽과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기구들은 이슬람 세계의 선교현장에서 각자의 은사와 소명에 다른 전문성과 사역의 기법을 서로 인정하며 효과적으로 연합과 협력을 잘하고 있다. 이분들이 또한 북한의 고난받는 교회를 돕는 일에도 앞장을 서고 있다. 스코틀랜드 현지 오픈도어선교회 책임자는 오순절교회 목사이지만 그의 장인이 장로교

회 목사이기에 에든버러와 글래스고에서 수십 명의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북한 지하교회를 후원하고 있다. 오순절교회 목사 부부인 현지 책임자의 고난받는 교회를 섬기려는 그 열의와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지금도 여운처럼 남아있다. 네덜란드의 보수적 개혁교회 책임자들이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초교파 단체인 국제오픈도어선교회를 통해서 북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평신도이지만 그 교회 연합기구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 북한 지하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 북한 지하교회의 가장 큰 교단 배경은 장로교회의 뿌리이다. 이분들은 공산화 이전 초기 장로교회 선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보수적인 장로교의 신학과 신앙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앞장을 서서 2000년도 중기에 자신들뿐 아니라 성결교와 동아기독교 즉 침례교와 감리교의 뿌리 신자들이 북한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분들을 함께 도울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이후 얼마 안 되어서 각 교단 배경의 뿌리 신자들의 지도자들로부터 자신들을 소개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북한 지하교회는 공산화 이전의 각 교단의 신학과 신앙을 보수적으로 간직하고 있으나 서로 간에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유기체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연합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례교회 안에 17세기부터 유래되어 온 켈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소수의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있다. 이분들이 앞장을 서서 북한 지하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모처에 독일로부터 유래된 경건주의 후손인 메노나이트 계열의 교회가 있다. 이분들은 공산화 시절 러시아에서 시베리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있다. 순교자의 뿌리가 기반이 된 교회이다. 오늘날, 이 교회가 앞장을 서서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매달 하루를 밤새우며 금식기도 하고, 일 년에 두 번 이렇게 모여진 수만 달러의 선교헌금을 북한선교를 위해 보내오고 있다. 이 헌금은 그곳 교인들이 부유한 환경에서 보내온 것이 아닌 실로 고난받는 북한 지하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동병상련의 사랑의 마음의 최선의 표현이요, 위로이고 헌신이다. 스칸디나비아 특정 나라의 루터교 교회 배경을 가진 목사님과 교인들이 동유럽과 구소련 러시아의 공산주의 시절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창설한 특정 선교단체가 있다. 한국에 주재하

며 중국에 있는 북한 탈북 난민들을 구출하는 일에 특별한 소명을 가진 미국인 선교사가 북한의 고난받는 지하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과 연결된 이 특정 선교단체를 오래전에 본인에게 소개하였다. 이 선교기구에는 거의 10년 동안 변함없이 북한 교인들을 섬기고 있으며, 놀라운 것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 전염병이 난무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선교헌금이 두 배나 늘어나므로 북한 지하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두 배로 확장하였다. 북한 지하교회는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교단 배경을 초월하여 저들을 돕고, 격려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도처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복음의 빛과 사랑의 빛을 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하에 숨어있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북한의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다.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세속적 명성과 헛된 야심을 가진 병들은 교회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이 사역에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신실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분의 참된 백성들을 세계 곳곳에서 동원하고 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전 세계의 고난받는 교회와 특히 북한교회를 섬기는 일에 2022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다. 오직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와 격려가 필요하다. 1995년도에 한국에 진출한 국제오픈도어선교회를 대표한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그동안 전 세계의 고난받는 교회를 돕는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에서 모여진 모든 선교헌금을 오직 10% 만 자체 운영비로 돌리고, 나머지 90%를 선교현장에 보내었다. 이것은 본 선교회에 속한 실무 간사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가능하였다. 한국교회의 후원자들에게 지면을 통해서 이사장으로서 공동대표로서 양해를 구한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선교사역이 더욱 확장되고, 더 많은 실무 간사들이 필요하고, 또한 생활인으로서 주의 일을 함에 기본적 수입이 모든 간사에게 요청이 되기에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지도자들의 우선적인 양해를 구하였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선교헌금의 20%를 선교회 자체 운영비로 올해부터 사용하는 일이다. 선교회 운영비에 대한 후원이 풍성하여 모든 선교헌금을 100% 선교현장에 보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CONTENTS

04 WWL 2022 월드와치리스트

- 세계기독교 박해지수 보고

08 WWL 2022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 박해 동향

14 WWL 2022 월드와치리스트

- 통계로 보는 기독교 박해 보고

18 WWL 2022 스토리 - 아프가니스탄 자비(Zabi)자매

22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기도

24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2022년 02월호 | 통권 238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셋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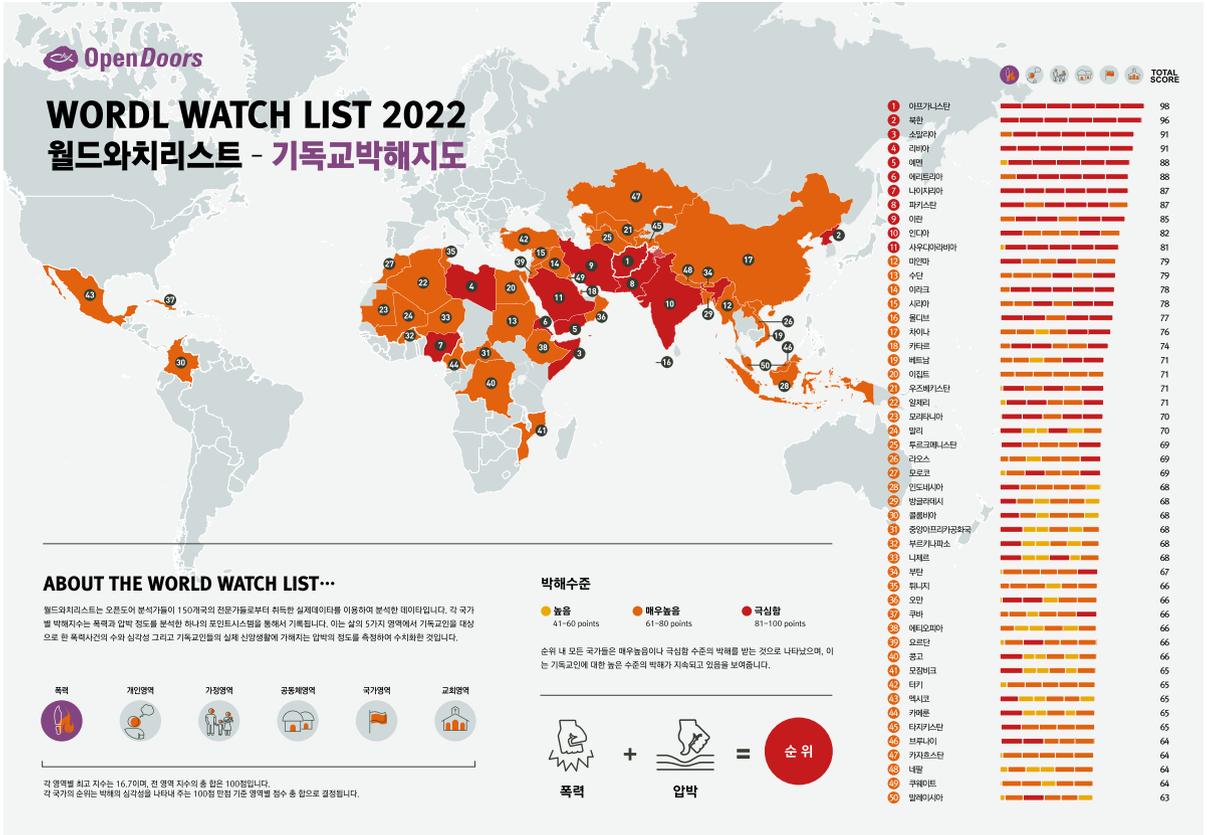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세계 이슬람극단주의 세력들을 고무시킨 탈레반의 집권으로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된 아프가니스탄

오늘 발표된 월드와치리스트 2022(World Watch List 2022) 박해지수에 따르면, 기독교인에게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아프가니스탄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커져가고 있는 북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와치리스트 박해 지수 1위에 올랐다.

전세계 국가들의 박해와 차별의 정도를 기록한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는 3억6,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이유로 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작년 보다 2,0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올 해는 29년 전 첫 번째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가 발표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박해 지수를 기록했

으며,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 잔인한 현실

아래 보고는 아프가니스탄 내 아주 깊이 숨어있는 작은 기독교인들의 충격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 기독교 신앙이 드러난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사형된다.
- 소녀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은 죽음은 피할 수 있지만, "전리품"의 일환으로 탈레반 요원들과 결혼하게 되며, 만약 강간당한 여성일 경우, 인신매매로 팔리게 된다.
- 수립될 탈레반 정부는 빈번하게 구금되었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기 전에 얻은 기독교 네트워크들을 알 수 있는 기록과 정보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 탈레반요원들은 취득된 첩보를 통해서, 집집마다 방문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추적하고 있다.
-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변국의 시골 지역이나 난민캠프로 피신하고 있으며, 이들 주변국들 모두는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에서 기독교에 적대적인 국가들로 나타난다.

대담해진 탈레반: 서아프리카와 남부 사하라 지역의 '탈레반화'

한편, 카불의 몰락은 전세계 지하디스트 단체들의 정체되었던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들 세력은 더이상 서구평창주의 아젠다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정부 권력이 약하고 부패한 국가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 영향은 아직 월드와치리스트2022 조사 기간(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에는 완전히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미 높은 수준의 폭력지수를 보이고 있는 나이지리아(7위), 말리(24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31위), 부르키나파소(32위), 니제르(33위), 콩고(40위) 등의 국가에서 폭력이 더욱 증폭될 강력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전 해군 정보 책임자 코모도르 쿠리 올라운미 제독(Commodore Kunli Olawunmi)은 최근 지하디스트 세력이 확장되면서 나타난, 나이지리아 내 지하디스트 그룹들의 일치된 '탈레반화' 전략에 대해 "정부 요원들과 부족 그룹들이 연루되어 종교적 동기를 기반으로, 국가 치안과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총 4,650명의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고 이는 전세계 총 희생자 수의 79%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하디스트 그룹들이나 지지자들에게서 비슷한 전략을 찾아볼 수 있다.

-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이미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심한 곳으로, 지하디스트 폭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대부분은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 말리(Mali, 24위)의 사회질서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고, 주변국인 니제르와 부르키나파소로 반란이 확산되면서 '넥스트(next)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 연합민주군(the Alliance of Democratic Forces)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CAR) 모두 폭력지수 상위 10위 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들에서 계속되는 폭력과 불안으로 전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서 자신들의 거처를 떠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오픈도어 김성태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이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지수 1위 국가가 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전했다. IS(Islamic



State)와 연합민주군(ADF:Alliance of Democratic Forces)과 같은 진영은 한때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한번 실패했던 이슬람 칼리프 왕국(Islam Caliphate)에 대한 꿈을 이루는 것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난민교회

약 8,400만 명이 강제로 거주지를 떠나거나, 국내 이재민이 되었고, 이중 약 2,660만 명이 해외 난민이 되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난민이 된 기독교인들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기독교인구는 거의 사라졌다. 지난 몇 년간,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의 수 백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나이지리아에서는 WWL2022 보고 기간에만 총 470개의 교회가 폐쇄되었다.
- 수십 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극단주의 이슬람의 폭력(사헬 지대 주변국가, 강제징집 (에리트리아, 6위), 내전(수단, 13위), 정부탄압(이란, 9위) 그리고 신앙의 이유로 가족으로부터의 박해를 피해 난민이 되고 있다.
- 기독교 이재민과 난민들은 이라크(14위), 시리아(15위), 레바논, 요르단(39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인도주의적인 현실적 지원을 거부당할 수 있다.
- 미얀마(12위)에서는 기독교 지역이 지속적인 분쟁의 표적이 됨에 따라 최소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국내 이재민이 되었고 2만 명이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되었다.

이들이 집을 떠나 이재민이나 난민이 되면, 더욱 더 취약해진다. 여성과 소녀들의 박해의 주된 요인은 성폭행이다. 안전을 찾아 집을 떠난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난민캠프는 물론 안



전한 곳을 찾는 여정에서도 강간과 성노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 빈곤과 불안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하며, 이들 중 일부는 생존을 위한 매춘을 강요받는다. 지하디즘이 확산되고 국가들이 불안정화됨에 따라, 기독교인들의 난민화(Christian exodus)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신념’ - 다양성의 질식

중국(17위)의 경제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순응을 요구하는 중국 정부의 권위적 강제 역시 커지고 있다. 이는 말, 행동과 신념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2021년 5월부터 새롭게 제정된 법안은 중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국을 사랑하고,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당 지도부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민족적 단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공산당이 앞서가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자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집행된다. 중국 내 2개 지역에는, 공식 허가된 모든 삼자 교회들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강화된 중국권위주의는 중국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 같은 다양성에 대한 “통일”이 집권 공산당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 오픈도어의 최근 인도(10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인도인이 되는 것은 힌두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도민족주의 ‘힌두트바(Hindutva)’의 이념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인과 타 소수 종교를 향한 폭력의 흐름은 인도 전역을 넘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간과되거나 조장되고 있으며, 주류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왜곡 전전되고 있다.

- 미얀마(12위), 말레이시아(50위), 스리랑카(52위), 중앙아시아 국가들 등에서도 총성과 동질성에 대한 비슷한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도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신념’이라는 신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 공산주의 이념 아래에 있는 남미 국가들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조치가 교회를 감시하고 추가적인 제제를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쿠바(37위)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대규모 시위 후, 사회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인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이 구금되어 고문을 당했고 과도한 벌금이 부과

되었다. 니카라과(61위)와 베네주엘라(65위)에서도, 정부여당은 카톨릭 주교들을 비방하는 캠페인을 조장하였고 교회 등록 허가를 취소하고 교회들을 폐쇄하였다.

올 해의 다른 주요 동향들

박해가 급증한 국가들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박해지수가 눈에 띄게 상승한 몇몇 국가들이 있다.

- 카타르(29위 → 18위): 올 해 월드컵이 개최되는 국가로,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신체적, 심리적 폭력과 더불어,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47위 → 28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중부지역 기독교인들은 두 차례의 공격을 받았으며, 마카사르 성당은 폭탄테러 공격을 받았다.
- 미얀마(18위 → 12위): 미얀마 군대는 기독교 마을과 교회들을 공격했으며, 20만명 이상을 이재민 캠프로 내몰았다.
- 부탄(43위 → 34위): 특히 기독교 개종자들은 지역 사회로부터 압력과 폭력을 당하며, 여성의 경우 성폭력의 위협에 놓이고 있다.

끊임없는 압력과 폭력의 증가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가 작년(WWL2021) 4,761명에서 올해(WWL2022)는 5,89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에서의 사망자 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리적 공격을 받은 교회의 수는 지난 해 4,488건에서 올해는 5,110건으로 증가하였고, 구금되거나 체포된 기독교인의 수는 WWL2021 보다 44% 증가하여 올 해는 총 6,175명이 구금되거나 체포되었으며, 이 중 1,315명은 인도에서 구금 및 체포되었다.

겉으로 드러난 폭력이 더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을지라도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끊임없는 압박이 일상 속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차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가족의 압박, 구호품과 의약품 수령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 구호품과 관련하여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어려움, 교회 허가를 방해하는 정부 관료들의 압박은 매우 미묘하고 분명한 형태로 나타난다.



북한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지수 2위 국가로 하향되었음에도, 올해 북한의 박해지수는 사상 최고수치를 기록했다.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인해, 체포되는 기독교인과 폐쇄되는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다. 체포된다는 것은 겨우 몇몇 사람만이 살아남는 북한정권의 잔인한 '재교육수용소(노동수용소)' 중 한 곳에 수감됨을 의미한다.

조그마한 위로

이라크(11위 → 14위), 시리아(12위 → 15위), 이집트(16위 → 20위) 그리고 터키(25위 → 45위)는 폭력이 감소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박해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올 해 월드와치리스트(WWL 2022)를 진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오픈도어 김경복 사무총장은, “대담해진 극단주의 이슬람세력, 다시 살아나는 민족주의, 그리고 더 정교한 형태의 디지털 박해를 개발하고 있는 중국까지, 우리는 인권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종교적 자유가 다른 많은 자유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2022년에는 인권 신장을 위한 헌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인권에 대한 말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라고 말했다.

2022년도 월드와치리스트 TOP 50-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50개국

박해 순위	국가명	개인생활 박해지수	가정생활 박해지수	지역생활 박해지수	국가생활 박해지수	교회생활 박해지수	폭력지수	총 박해 지수
		6개 영역별 최대치 16.7						
1	아프가니스탄	16.7	16.7	16.7	16.7	16.7	15.0	98
2	북한	16.7	16.7	16.7	16.7	16.7	13.1	96
3	소말리아	16.5	16.7	16.6	16.6	16.6	8.5	91
4	리비아	15.6	15.5	15.9	16.2	16.3	11.5	91
5	예멘	16.7	16.6	16.5	16.7	16.7	5.2	88
6	에리트레아	14.6	14.9	15.5	15.9	15.6	11.1	88
7	나이지리아	13.8	13.8	14.3	14.5	14.4	16.7	87
8	파키스탄	13.6	14.0	15.1	14.9	13.1	16.7	87
9	이란	14.5	14.6	13.6	15.8	16.5	10.4	85
10	인도	12.7	12.7	12.9	14.7	13.3	15.6	82
11	사우디아라비아	15.1	15.1	15.0	15.9	16.7	3.1	81
12	미얀마	12.4	11.5	13.8	13.4	13.1	14.8	79
13	수단	13.4	13.4	14.3	13.6	15.7	8.5	79
14	이라크	14.0	14.6	14.0	14.8	13.9	6.9	78
15	시리아	12.9	13.8	13.5	14.3	13.9	9.3	78
16	몰디브	15.4	15.3	13.7	15.8	16.5	0.4	77
17	차이나	12.6	9.8	12.2	14.4	15.5	11.1	76
18	카타르	14.2	14.1	11.1	13.0	14.3	7.2	74
19	베트남	11.3	9.7	12.7	14.1	14.5	8.7	71
20	이집트	12.7	13.2	11.5	12.7	10.8	10.0	71
21	우즈베키스탄	14.9	12.7	14.1	11.8	15.6	1.7	71
22	알제리	14.0	14.0	11.1	13.4	14.1	4.1	71
23	마우리타니아	14.3	13.9	13.1	14.0	14.1	0.9	70
24	말리	9.4	8.2	13.9	10.3	12.8	15.0	70
25	투르크메니스탄	14.5	11.3	13.6	13.3	15.7	0.6	69
26	라오스	12.0	10.3	13.2	13.3	14.1	5.9	69
27	모로코	13.1	13.8	10.8	12.8	14.2	3.9	69
28	인도네시아	11.3	11.5	11.5	11.0	9.6	13.5	68
29	방글라데시	11.8	10.7	12.9	11.3	10.2	11.3	68
30	콜롬비아	11.5	8.8	13.1	11.0	9.9	13.3	68
3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0	8.6	13.6	9.6	11.4	15.6	68
32	부르키나파소	9.4	9.7	12.0	9.6	12.1	14.8	68
33	니제르	9.4	9.5	13.9	7.2	12.8	14.8	68
34	부탄	13.4	12.4	11.7	13.7	13.8	1.7	67
35	튀니지	11.9	12.7	10.6	11.3	13.4	6.5	66
36	오만	13.8	14.0	10.3	13.2	13.4	1.5	66
37	쿠바	12.3	8.1	12.6	13.2	14.0	5.9	66
38	에티오피아	9.9	10.3	13.1	10.3	12.3	9.8	66
39	요르단	12.9	14.0	11.0	12.3	12.5	3.0	66
40	콩고RC (DRC)	8.0	7.9	12.6	9.7	12.0	15.6	66
41	모잠비크	9.3	8.5	11.3	7.9	12.5	15.6	65
42	터키	12.6	11.5	11.4	13.2	11.6	4.6	65
43	멕시코	10.3	8.3	12.5	10.8	10.3	12.6	65
44	카메룬	8.8	7.6	12.6	7.2	13.1	15.4	65
45	타지키스탄	13.8	12.3	12.0	12.6	13.2	0.7	65
46	브루나이	14.8	14.5	10.3	11.0	13.2	0.6	64
47	카자흐스탄	13.4	11.6	11.1	12.6	13.5	1.7	64
48	네팔	12.4	9.8	9.9	13.6	12.7	5.2	64
49	쿠웨이트	13.5	13.7	9.8	12.3	13.1	1.1	64
50	말레이시아	12.5	14.3	11.5	11.6	10.2	3.3	63

2022년도 월드와치리스트 TOP 50

(괄호안은 2021년도 순위)

상위 50개국 외에도 5개국이 '매우 높음' 수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2개국(이스라엘과 베네수엘라)이 더 많은 76개국이 극심함, 매우 높음, 높음의 박해와 차별 지수를 보였다. 이는 전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와 차별의 영향권에 있음을 보여준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전세계적으로 계속 심해지고 있으며, 30년 전 월드와치리스트가 발표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박해를 보이고 있다.

- 3억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
- 이 수치는 2021년 8명 중 1명에서 2022년에는 기독교인 7명 중 1명으로 박해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드와치리스트(WWL: World Watch List)란 무엇이며, 수치들은 어떻게 산출되나?

월드와치리스트는 1993년 1월에 처음으로 산출되었다. 각 국가들의 박해지수는 일반적으로 삶의 6개 영역인 폭력, 개인, 가정, 공동체, 국가, 교회에 대한 박해지수를 통합한 수치이다. 올 해 발표되는 월드와치리스트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이다.

매년 초에 발표되는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 외부 전문가 및 박해분석가들의 광범위한 연구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 세계 국가들의 박해를 분석하고 수치화한 것이다. 이 리스트는 종교의 자유 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의 인증을 받은 공인된 자료이다.

코로나 19 규제들로 인해, 수집된 현장데이터들은 약간의 추가 조치들을 필요로 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추가된 디지털 기술과 전문가 연구를 비롯하여,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 및 월드와치리스트 2022의 박해지수를 신뢰한다.





WWL 2022 세계 기독교 박해 동향 4가지

01.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지하디스트들이 결국 전세계적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강화시켰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부 장악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의 지하디스트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 주변국인 파키스탄에서도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축하를 통해 탈레반은 더욱 힘을 얻었다. 다른 세력들 또한 점차 대담해질 것이며, 2002년 발리 폭탄테러를 일으켰던 인도네시아의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h)와 같은 이슬람원리주의 단체는 탈레반과 연관되어 있다.

지하디스트들은 부패하고 힘없는 정부와 행정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전역의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아프리카 정부를 지원하는 외국군대의 철수는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 예로, 지난 십년간 소말리아 정부와 동맹군인 아프리카 연합군에 대항하여 싸웠던 알-샤바브 세력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지하”교회는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결국 작아지고 흩어지고 말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한 모습이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공개적으로 IS와 연맹을 맺은 연합민주군(the Alliance of Democratic Forces)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시한번 폭력지수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나이지리아와 함께 폭력지수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기독교인이나 다른 소수민족 집단들 모두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의 통제를 받는 안보기구에 자신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특별히 보코하람과 IS서 아프리카 지부(Islamic States West Africa Province)와 같은 지하디스트 그룹으로 알려진 풀라니(Fulani)무장세력들에 의해 대학, 학교, 교회, 마을과 공동체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납치, 살인, 상해를 비롯한 가축과 생계 파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하디스트가 차드호 유역국(나이지리아, 차드, 카메룬, 니제르 남부지역)과 사헬지대 주변국(아프리카 사하라사막 남부 경계국 말리, 부르키나 파소, 니제르 서부지역) 전역을 넘어 모잠비크와 카메룬에서도 활동함에 따라 두 나라가 폭력

지수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사하라 이남 9개국 중 5개국은 2014년 월드와치리스트에는 오르지도 않았던 국가들이다. (차드는 2022년도 박해국가 상위 50개국에는 들지 않았지만 63위를 기록했고, “박해감시국가”라고 명명된다.

02. '쫓겨나거나 난민이 되는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유엔 난민 기구로 불리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는 2021년 약 8천4백만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났고 그 중 2천6백만명은 국외로 쫓겨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떠나간 기독교인들이며,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폭력(예: 사헬지대 주변국)이나 강제 징병(예: 에리트리아), 내전(예: 수단), 국가탄압(예: 이란)이나 신앙을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박해 등의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남아 국내 이재민이 되거나 난민이 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들(케냐 동북지역 포함)에 대한 리서치는 기독교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백 개의 교회들이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에서 문을 닫았고, 올 해는 나이지리아에서만 47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온다면, 지하디스트의 폭력적 공격이 재개될 것이다.

일단 쫓겨나거나 떠도는 삶이 시작되고, 특히 리비아에 도착하게 되면, 약탈, 인신매매, 강간과 감금의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기독교인 국내 이재민들과 난민들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출신 국가의 소수민족 출신으로써 현재 난민캠프에 있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당할 수 있고 인도주의적 도움과 다른 실질적 도움마저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이는 서구의 난민 캠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기독교 여성들은 여성 박해의 주요 요인을 성폭행으로 꼽는다. 월드와치리스트 연구원들은 여성과 아이들이 캠프 안에서, 특히 안전을 찾아 떠나온 여정 속에서 강간, 성 노예, 성희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빈곤과 불안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하여 이들 중 일부는 생존을 위한 매춘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많은 난민 기독교인들은 난민캠프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며, 이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난민등록이 되지 않아서 구호물자, 트라우마 치료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 또한 잃게 되는 것이다.





미얀마 분쟁은 기독교인이 다수인 친 주(Chine State)와 카친, 카야, 산 주(Kachin, Kayah, Shan State)의 소수 기독교인들이 대상이 되었다. 미얀마군은 교회를 폭격하고 목회자를 살해하고 억류하였다. 이번 리서치 결과는 월드와치리스트 2022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2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추방되었고 이 중 2만명이 나라를 떠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역과 아시아 일부 지역 크리스천들은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걸친 박해와 끊이지 않는 차별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신들의 집과 나라를 어쩔 수 없이 떠났다. 청년들이 나이지리아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로부터 이주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탈출(Exodus)’은 그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약화시킨다.

03. 중국의 중앙집중 종교 통제 모델이 세계를 이끈다.

중국은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 요소를 포함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일대일로 (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를 구상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적 능력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민족주의도 강력해지고 있다. 이는 선택권, 언론의 자유나 다른 신념체계 보다는 “명령”을 통해 위로부터 강제된 사회적 안정을 요구한다. 중국 종교지도자들은 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2021년 5월 제정된 새로운 규정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 지도자와 사회주의 시스템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지도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민족 단결을 훼손하거나 국가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중국내에서 중국국민들의 외국인 접촉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남미대륙에서는 공산주의 이념 아래, 팬데믹이 교회를 감시하고 더 많은 제한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사용되어졌다. 쿠바에서는 지난 7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후, 사회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인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이 구금되어 고문을 당했고 과도한 벌금이 부과되었다.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에서도, 정부여당은 카톨릭 주교들을 비방하는 캠페인을 조장하였고 교회 등록 허가를 취소하고 교회들을 폐쇄하였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 모델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종교'의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스리랑카, 미얀마,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모방되고 있다.

소수민족들은 점차 사회적 의심이 증가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 기득권 집단과 소셜미디어의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권위주의가 이슬람과 결합되는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겪는다.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의 불안정성은 이슬람 개종자와 마찬가지로, 전통 교회와 비 전통 교회, 기존 교회들에 대한 독재적 조치가 빈번하게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알제리의 경우, 이미 폐쇄된 13개 교회에 더해, 올해 3개의 개신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았다.



04. 범죄 조직 뿐 만 아니라 권위적 정부들도 코로나 제한조치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신속하고 엄격한 대응은 잘 문서화되어 있다. 제재조치의 필요성이 사라진 일부 지역에서는 미등록 교회 뿐 만 아니라 공식적인 삼자교회에도 재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더 작은 '셀모임' 형태로 가정이나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을 수밖에 없다. 한편, 허난성과 장시성 지역 보고에 의하면, 지역 정부가 승인한 모든 종교적 시설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일부 성경 어플/앱들은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가 금지되었다. 기독교 온라인 서점들 '불법운영'한 남성 이 체포된 후, 정부 당국자들은 수감된 유명 목사의 저서 반

납 명령을 포함하여 모든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수사를 벌였다.

팬데믹은 권위적 정부가 집권하는 국가들뿐 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감시체계가 국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잘 작동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베트남을 예로 들면, 국가 및 비 국가 행위자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범죄 조사를 부추기는데 코로나 19 팬데믹을 이용하였다.

지난해 월드와치리스트(WWL 2021)을 통해 보도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퇴치에 중점을 둔 서아프리카부터 중앙 아메리카 정부들의 조치는 지하디스트 및 조직된 범죄단체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힘과 영토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좋은 소식도 있었다.

IS에 의해 훼손된 이라크 지역에 대한 교황 방문은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방문은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라크 땅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했다.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집트, 튀니지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교회에 대한 폭력이 감소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이 코로나 19 제한 조치로 인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의 글로리아 아고티(Gloris Agorti) 수녀는 이슬람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5년에 가까운 포로생활을 하다, 지난 2021년 10월 말리(Mali)에서 석방되었다. 글로리아 아고티 수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시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WWL2022 통계로 보는 세계 기독교박해 보고

* 조사기간: 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30일

폭력 박해 유형	WWL 2022	WWL 2021	WWL 2020	WWL 2019	WWL 2018	WWL 2017	WWL 2016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수	5,898	4,761	2,983	4,305	3,066	1,207	7,106
교회 및 기독교 관련 건물이 공격받은 사건 수	5,110	4,488	9,488	1,847	793	1,329	2,425
재판없이 기독교인이 구금, 체포, 선고 및 투옥된 사건수	6,175	4,277	4,811	3,150	1,905	-	-
기독교인이 납치된 사건 수	3,829	1,710	1,052	-	-	-	-

●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는 2021년 4,761명에서 2022년 5,898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4%가 증가한 수치다. 나이지리아에서만 전체 사망자의 79%에 해당하는 4,65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파키스탄이 그 뒤를 이어 11%, 62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고, NN, 부르키나파소,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가 뒤를 이었다.

●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공격을 받은 교회의 수는 4,488건(WWL2021)에서 5,110건(WWL2022)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14%가 증가했으며, 전체의 59%를 차지한 중국은

3000건으로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나이지리아가 470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방글라데시 200건, 파키스탄 183건, 카타르 100건, 중앙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 브루나이, 앙골라 그리고 르완다가 그 뒤를 이었다.

● 신앙을 이유로 구금된 기독교인의 수는 작년 2,813명에서 올해는 4,765명으로 증가했다. 작년 대비 69%가 증가했으며, 인도(1,310명)를 비롯한 파키스탄, 중국 등 상위 4개국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 신앙을 이유로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는 1,710명(WWL2021)에서 3,829명(WWL2022)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124%가 증가했으며, 나이지리아(66%, 2,510명)와 파키스탄(26%)이 전체 납치 건 수의 92%를 차지했다.

● **신앙을 이유로 강간이나 성추행 당한 기독교인의 수는 보고된 건만 총 3,147건**이었다. 총 48개 국가 중 36개국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며, 실제 발생 건 수는 훨씬 높다고 봐야한다. 금기 시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욱이 정확한 수치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강제결혼 역시 정확한 통계가 불가하나, 보고된 건만 1,588건에 달했다. 총 37개국 중 25개국의 정확한 수치 산출이 어려웠으며,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강제로 혼인된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너무나도 적은 수치 뒤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 신앙을 이유로 육체적 정신적 학대(폭력과 살해협박 포함)를 받는 기독교인의 수는 14,678명이었다. 전체 74개국 중 36개국이 정확한 수치 산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 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 기독교인의 거주지가 공격을 받은 경우는 4,543 건이 보고되었다. 상위 3개국(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모잠비크)를 비롯한 6위부터 10위 국가들(이라크, 시리아, 차이나, 부르키나파소, 콩고)의 정확한 수치 산출이 어려웠다. 실제 발생 건 수는 훨씬 높을 것이며, 특별히 지하디스트들의 폭력 활동이 있는 곳에서 더욱 편차가 심할 것이다.

● 기독교인의 사업장이 공격당한 수는 1,906건이었다. 이 항목 역시 38개국 중 18개의 국가의 정확한 수치 산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신앙을 이유로 폭력이나 압박의 공격으로 집을 떠나 국내 지역에 숨어 지내는 기독교 이재민의 수는 218,709명**이다. 이 수치 역시 정확한 수치는 더 높을 것이며, 1위를 차지한 미얀마가 총 200,000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 **신앙을 이유로 강제로 모국에서 추방된 기독교 난민 수는 25,038명**이 보고되었다. 이 부분에서도 미얀마가 1위를 차지했고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20,000명이 난민이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폭력 유형별 박해 순위

* NN: 라틴어 "Nomen Nescio(이름을 모른다)"의 약자로, 보안상 이유로 익명으로 표시한 국가

* 10, 100, 1000: 산출 불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수치는 더 높음.

* 파악된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보고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훨씬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죽임을 당한 크리스천 수는? (국가의 허가된 사형 포함) 총 5,898명**

순위	WWL 2022 순위	국가	사람 수 (명)
1	7	나이지리아	4650
2	8	파키스탄	620
3		NN	100
4	32	부르키나파소	100
5	40	콩고민주공화국(DRC)	100
6	41	모잠비크	100
7	3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9
8	44	카메룬	27
9	55	탄자니아	25
10	28	인도네시아	15
11	12	미얀마	13
12	68	온두라스	13
13		NN	10
14	4	리비아	10
15	10	인도	29
16	24	말리	10
17	33	니제르	10
18	74	남수단	10
19	20	이집트	8
20	30	콜롬비아	7
21	43	멕시코	7
22	65	베네수엘라	4
23	69	우간다	4
24	51	케냐	3
25	70	엘살바도르	3
26	29	방글라데시	2
27	56	아제르바이잔	2
28	14	이라크	1
29	19	베트남	1
30	26	라오스	1
31	38	에티오피아	1
32	75	코트디부아르	1
33	76	이스라엘	1

● 신앙을 이유로 공격, 파손, 폭격, 약탈, 파괴, 소실, 폐쇄 또는 몰수된 교회나 기독교 건물(학교, 병원, 공동묘지 등) 수는? 총 5,110명

순위	WWL 2022 순위	국가	사건 수 (건)
1	17	중국	3000
2	7	나이지리아	470
3	29	방글라데시	200
4	8	파키스탄	183
5	18	카타르	100
6	3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0
7	32	부르키나파소	100
8	41	모잠비크	100
9	64	부룬디	100
10	66	앙골라	100
11	67	르완다	100
12	30	콜롬비아	96
13	10	인도	47
14	43	멕시코	45
15	61	나카라과	28
16	38	에티오피아	25
17	65	베네수엘라	24
18	12	미얀마	23
19	33	니제르	20
20	9	이란	19
21	28	인도네시아	16
22	55	탄자니아	11
23		NN	10
24		NN	10
25	6	에리트레아	10
26	13	수단	10
27	15	시리아	10
28	19	베트남	10
29	24	말리	10
30	40	콩고민주공화국(DRC)	10
31	44	카메룬	10
32	51	케냐	10
33	76	스리랑카	10
34	69	우간다	10
35	74	남수단	10
36		NN	8
37	37	쿠바	7
38	63	차드	6
39	76	이스라엘	6
40	48	네팔	5
41	70	엘살바도르	5
42	22	알제리	4
43	35	튀니지	4
44	42	터키	4
45	4	리비아	3
46	14	이라크	3
47	26	라오스	3
48	56	아제르바이잔	3
49	68	온두라스	3

순위	WWL 2022 순위	국가	사건 수 (건)
50	20	이집트	2
51	34	부탄	2
52		NN	1
53	39	요르단	1
54	50	말레이시아	1
55	59	키르기스스탄	1
56	62	러시아연방	1

●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재판없이 구금된 기독교인의 수는? 총 4,765명

순위	WWL 2022 순위	국가	사람 수 (명)
1	10	인도	1310
2		NN	1000
3	8	파키스탄	1000
4	17	중국	1000
5	6	에리트레아	55
6	9	이란	49
7	30	콜롬비아	45
8	37	쿠바	44
9	28	인도네시아	25
10	26	라오스	19
11	7	나이지리아	17
12	43	멕시코	17
13	12	미얀마	16
14	20	이집트	11
15	27	모로코	11
16		NN	10
17		NN	10
18	19	베트남	10
19	29	방글라데시	10
20	39	요르단	10
21	64	부룬디	10
22	66	앙골라	10
23	67	르완다	10
24	47	카자흐스탄	8
25	48	네팔	7
26	15	시리아	6
27	65	베네수엘라	6
28	69	우간다	6
29	21	우즈베키스탄	5
30	33	니제르	3
31	52	스리랑카	3
32		NN	2
33	22	알제리	2
34	35	튀니지	2
35	42	터키	2
36	53	코모로	2
37	62	러시아연방	2
38	4	리비아	1
39	11	사우디아라비아	1
40	13	수단	1
41	14	이라크	1

순위	WWL 2022 순위	국가	사람 수 (명)
42		NN	1
43	18	카타르	1
44	23	모리타니	1
45	34	부탄	1
46	38	에티오피아	1
47	61	니카라과	1

● 신앙을 이유로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는? 총 3,829명

순위	WWL 2022 순위	국가	사람 수 (명)
1	7	나이지리아	2510
2	8	파키스탄	1000
3	40	콩고민주공화국(DRC)	134
4	14	이라크	31
5	29	방글라데시	11
6	4	리비아	10
7		NN	10
8	6	에리트레아	10
9	17	중국	10
10	24	말리	10
11	3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
12	41	모잠비크	10
13	74	남수단	10
14	32	부르키나파소	8
15	27	모로코	7
16	20	이집트	5
17	70	엘살바도르	5
18	26	라오스	4
19	30	콜롬비아	4
20	43	멕시코	4
21	44	카메룬	4
22	50	말레이시아	3
23	51	케냐	3
24	10	인도	2
25	12	미얀마	2
26	33	니제르	2
27	35	튀니지	2
28	55	탄자니아	2
29	65	베네수엘라	2
30	36	오만	1
31	38	에티오피아	1
32	61	니카라과	1
33	68	온두라스	1

● 신앙을 이유로 강간이나 성추행 당한 기독교인 수?
총 3,147명

순위	WWL 2022 순위	국가	사람 수 (명)
1	7	나이지리아	1000
2	8	파키스탄	1000
3		NN	100
4	11	사우디아라비아	100
5	12	미얀마	100
6	32	부르키나파소	100
7	39	요르단	100
8	40	콩고민주공화국(DRC)	100
9	41	모잠비크	100
10	44	카메룬	100
11	10	인도	38
12	27	모로코	12
13		NN	10
14		NN	10
15	4	리비아	10
16		NN	10
17	6	에리트레아	10
18	13	수단	10
19	14	이라크	10
20	15	시리아	10
21	17	중국	10
22	18	카타르	10
23	20	이집트	10
24	22	알제리	10
25	24	말리	10
26	3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
27	35	튀니지	10
28	36	오만	10
29	38	에티오피아	10
30	42	터키	10
31	49	쿠웨이트	10
32	51	케냐	10
33	54	아랍에미리트	10
34	60	바레인	10
35	63	차드	10
36	67	르완다	10
37	69	우간다	10
38	74	남수단	10
39	70	엘살바도르	9
40	30	콜롬비아	7
41	68	온두라스	7
42	29	방글라데시	5
43	9	이란	3
44	52	스리랑카	2
45	26	라오스	1
46	33	니제르	1
47	58	지부티	1
48	64	부룬디	1

실낱 같은 희망

RUN FOR YOUR LIFE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레이스의 아버지는 살해됐고, 오빠는 납치되었다.
그레이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자 그레이스는 탈레반을 피해 도망쳤다. 하지만 그녀가 언제까지 도피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박해를 마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탈레반에 그레이스의 기독교인 신분이 노출되어 생명이 위협한 상황이다.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몇 년 전, 탈레반 사람들이 찾아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아버지를 몇 달 동안 고문하다 결국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오빠까지 실종되었고 지금은 전혀 소식을 알 수 가 없는 상황이에요”라고 그레이스는 말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자, 그레이스는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레이스는 젊고 교육을 잘 받은 인권활동에 활발한 여성이었는데 이러한 점들이 그녀를 더욱 탈레반의 표적이 되게 했다. 지난 8월 그레이스와 같은 일부 크리스천들은 국제안보지원군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레이스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가능한 모든 재산을 챙겨서 국경을 넘어 도망쳐야만 했다.

“이제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되고 말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전 죽겠죠”

현재 그레이스는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 안전상 어디 인지는 밝힐 수 없으며, 그레이스는 여전히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레이스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에요. 은행계좌에 돈이 있지만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비자도 곧 만료될 거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곳을 떠나 안전한 어딘가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되고 말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전 죽겠죠”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강한 믿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를 그레이스에게 인도해 주셨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픈도어는 그레이



그레이스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녀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전해줄 수 있었고, 월세를 지불해주었으며, 생존과 안전을 위한 생활비를 전해줄 수 있었다.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들이 그녀와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하도록 그녀를 격려해주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저희 오픈도어가 계속해서 그레이스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오픈도어의 아프가니스탄 현지 파트너들은 “그레이스가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한 오픈도어의 도움에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녀와 함께 해 주어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레이스가 안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라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탈레반이 집권하기 전까지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지수 2위 국가였다.

즉각적인 반응

이번 아프가니스탄 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변화들과 교회를 향한 박해가 극심해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오픈도어 선교 사역은 항상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자세히 공개할 수가 없다. 다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후원 덕분에 오픈도어 파트너들이 위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현지 비밀 성도들과 근거리에서 연락하면서, 영적 격려와 비상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너무나도 불안정하다. 국경과 캠프는 모두 폐쇄되었고, 교회는 모두 흩어졌으며, 많은 기독교 인들은 지하로 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픈도어는 비밀리에 존재하는 취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을 위한 도움의 규모를 확장하고 기회를 늘여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실낱 같은 희망이에요, 그 희망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어요”

박해받는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오픈도어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의 해'를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lamy

아프가니스탄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싶은 감동이 있으시다면,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내 아프가니스탄 캠페인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오픈도어 현장 사역팀은 도움이 필요한 비밀 성도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결정한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그레이스와 같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레이스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식료품과 의류, 재정적 후원, 그리고 기도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실낱 같은 희망이에요. 그 희망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어요.”이라고 전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했으며 사진 또한 내용과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이 홀로 박해받지 않도록 함께해 주세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opendoors.or.kr)]에 접속하여 전세계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월드와치리스트 2022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도어 기도모임에 참여하셔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 함께 기도해주세요

- 아프가니스탄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아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 조국을 떠나 탈출한 기독교인들을 양육하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을 위해.

- 과일, 육류, 쌀, 겨울 옷, 위생용품 등 구호물자 전달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 폭력과 박해가 멈추고, 주님께서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지켜 주시도록.

● 후원해주세요

- 6만원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심하게 박해를 받아 도망 다니는 피난민 가정에게 한달의 비상식량과 의약품, 의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8만원이면, 7명의 비밀 신도들에게 성경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12만원이면, 20명의 비밀 신도들을 위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우리은행 1005-701-884976



* 기도책자는 오픈도어선교회로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 소책자가 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부수만큼 신청해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특별헌금'을 한번 드려 주세요.

사용방법

01. 기도용 소책자를 필요한 부수만큼 신청해 주세요.
02. 교회나 기도모임 상황에 따라 기도할 일정을 세워주세요.
03. 기도 소책자는 주간별 주제와 매일 기도제목, 간증, 기도내용, 성경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4. 기도하는 중에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특별헌금' 순서를 가진다.
05. 오픈도어는 1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를 지속 반복합니다. 각 기도회 상황에 따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
함께 섬겨주실 간사님을
모집합니다.



지원방법:
선교회 이메일(odsk@opendoors.or.kr)로 지원

재정/행정(풀타임) 1명

- 대졸이상, 연말정산, 전산 재정관리, 엑셀 사용 가능자
- 선교적 소명이 있는 분
- 해외 여행 및 체류 결격사유가 없는 분

주요업무
재정관리, 회원관리, 일반행정

홍보/디자인(파트타임) 1명

- 동영상, 문서편집 디자인 경험자
- 포토샵, 인디자인 사용 가능자
- 2~3일 이상 출근 가능자.
- 신학생 우대

※ 관련문의는 선교회 전화(02-596-3171)로 문의 바랍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 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02-5960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골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